



의안번호	제 2018 -30호
보 고 연 월 일	2018. 12. 10. (제91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전문위원 전체회의	1
1. 제121차 전체회의	1
2. 제122차 전체회의	1
II.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검토	2
1. 설정대상범죄	2
2. 대유형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양형인자 검토 결과	3
3. 대유형2 모욕 양형인자 검토 결과	13
III.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 검토(양형인자)	22
1. 설정대상범죄	22
2.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22
3. 양형인자 검토 결과	22
IV.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 검토(양형인자)	35
1. 설정대상범죄	35
2.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35
3. 양형인자 검토 결과	36
V. 향후 일정	44

【별첨】

- 송오섭,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 김찬중, 차호동, “명예훼손 범죄군 양형기준 검토[Ⅲ](양형인자)”
 - 전휴재, “유사수신행위범죄 양형기준 검토 3(양형인자)”
 - 김찬중, 차호동,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검토[Ⅲ](양형인자)”
 - 전휴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 3(양형인자)”
 - 김찬중, 차호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 검토[Ⅲ](양형인자)”
-

I. 전문위원 전체회의

1. 제121차 전체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8. 11. 12.(월) 15:30 ~ 21: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나.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권상진, 김찬중, 김희연, 송오섭, 전휴재, 차호동,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김혜경, 범현, 이진국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간사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검토

2. 제122차 전체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8. 11. 26.(월) 15:30 ~ 19:15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나.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권상진, 김찬중, 김혜경, 김희연, 범현, 이진국, 전휴재, 차호동,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송오섭, 최준혁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간사 : 운영지원단장

다. 주요 안건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검토

II.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검토

1. 설정대상범죄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유형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유형 (일반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307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5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00만 원↓ 벌금
	사자명예훼손	§ 308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2년↓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벌금
	상관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군 § 64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5년↓ 징역 또는 금고
2유형 (출판물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309 ②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 307 ② 죄	7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500만 원↓ 벌금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 반(명예훼손)	정통법 § 70 ②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7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5,000만 원↓ 벌금

나. 모욕

유형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유형 (일반 모욕)	모욕	§ 311	공연히 사람을 모욕	1년↓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벌금
2유형 (상관모욕)	상관모욕	군 § 64	①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2년↓ 징역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	3년↓ 징역

2. 대유형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양형인자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 / 형량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6월
2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8월	6월-1년4월	8월-2년6월

나. 검토 결과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u>미필적 고의</u> <u>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u>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u>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u>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균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u>자수</u> <u>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u>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폭력, 공갈,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장물, 강요, 손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 있어서의 특별감경인자임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체포·감금), 권리행사방해범죄(강요), 업무방해범죄(업무방해), 손괴범죄(일반적 기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임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경우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허위사실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적시된 허위사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참고 : ㉠ 선거범죄(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양형기준 중 특별감경인자인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위증·증거인멸범죄(위증) 양형기준 중 특별감경인자인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허위사실과 함께 적시된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형법 제308조에 규정된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징역 2년↓)과 일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징역 5년↓)의 차이 감안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⑤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나) 특별가중인자

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 방화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임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기서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행위반가치가 현저히 증가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증거인멸범죄, 선거범죄, 공갈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임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합성된 사진이나 조작된 SNS(Social Network Service) 대화 내용을 첨부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균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균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균형법 제64조 제4항)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조직의 규율과 위계를 중시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다) 일반감경인자

① 소극 가담

- 공범 중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행위반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경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선거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인자의 정의(선거범죄 양형기준 - 2018 양형기준 책자 323쪽 참조)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 명예훼손범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행위반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경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라) 일반가중인자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가) 미필적 고의

① 감경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㉔ 다수 의견(9인) : 미필적 고의를 감경인자에 포함하자는 견해

- 미필적 고의는 살인범죄, 폭력범죄, 체포·감금범죄, 장물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사기범죄, 업무방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 있어서 특별감경인자임
- 명예훼손범죄 양형실무상 허위사실 또는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선고형량에 유의미하게 반영됨. 이를 감경인자에 포함하여야 실무와 조화를 이루게 됨

㉕ 소수 의견(1인) : 미필적 고의를 감경인자에서 제외하자는 견해

- 실무상 미필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사례가 자체가 많지 않아 감경인자에 포함할 필요성이 낮음

② 감경인자에 포함할 경우 질적 구분 방안

㉔ 다수 의견(7인) : 특별감경인자로 구분하자는 견해

- ①항에 적힌 감경인자에 포함하자는 의견의 논거 참조

㉕ 소수 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하자는 견해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범죄는 위증범죄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음. 위증범죄 양형기준에서 미필적 고의를 일반감경인자로 하였으므로, 일반감경인자로 함이 타당

③ 양형인자의 정의 : 의견 일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① 감경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 의견 일치

- 명예훼손범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범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행위반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경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② 감경인자에 포함할 경우 질적 구분 방안

㉔ 제1 의견(5인) : 특별감경인자로 구분하자는 견해

- 2유형의 경우 법정형과 권고 형량이 높은 이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수단이 사용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 전파성이 높은 수단이 사용되었으나 실제 전파의 정도가 미미하여 2유형이 예정한 법익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㉕ 제2 의견(5인) :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하자는 견해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1유형과 2유형을 구별하여 전자는 일반감경인자로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할 이유 없고, 통일적으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③ 양형인자의 정의 : 의견 일치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게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자수

- 특별감경인자(행위자)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① 다수 의견(9인)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자는 견해

-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에 포함하고 있음.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과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규정함이 타당
- ㉡ 정보통신망이 이용되었으나 IP 도용 등 출처를 알기 어려운 사건에서 자수 여부는 유의미한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음

② 소수 의견(1인) : 특별감경인자에 제외하자는 견해

명예훼손범죄는 대부분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자수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할 필요 없음

- 양형인자 정의는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
- 다만 그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 문구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양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명 문구를 추가하거나 현행 문구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아 따로 표결하지 않음
- ① 제1 의견 : 이미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사용하고 있고, 명예훼손 범죄에서만 별도의 부가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자칫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설명 문구를 추가할 필요 없음

- ② 제2 의견 : ‘처벌불원’이 ㉠ 균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일반 형사범죄의 항소심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양형인자표 각주 등이나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에 포함시켜 일반 국민들이 양형인자가 갖는 의미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인자의 정의 관련 일부 의견 불일치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널리 알려져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 양형인자의 정의 중 3번째 예시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8인) : 포함하자는 견해

- 행위자 스스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과반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음

② 소수 의견(2인) : 제외하자는 견해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움

(마)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① 다수 의견(9인)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자는 견해

㉠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일반감경인자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포함함이 타당

㉡ 형법상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임에도 감경사유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② 소수 의견(1인) :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하자는 견해

주치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함이 타당

(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결과반가가 현저히 증가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 일치

○ 양형인자의 정의 관련 일부 의견 불일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중 3번째 예시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

① 제1 의견(5인) : 포함하자는 견해

-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가 발생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고 실무에서도 고려되는 요소임

② 제2 의견(5인) : 제외하자는 견해

- 3번째 예시는 양형인자 자체와 같은 의미로서 동어 반복적인 추상적 표현을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3. 대유형2 모욕 양형인자 검토 결과

가. 유형분류 / 형량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2	상관모욕	-6월	4월-10월	6월-1년2월

나. 검토 결과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비난할 만한 범행동기</u>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u>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범행(2유형 제외)</u>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u>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u>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소유형2)</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비대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u> • <u>범행 당시 다수의 부하군인 등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소유형2)</u> • <u>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소유형2)</u>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u>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체포·감금), 권리행사방해범죄(강요), 업무방해범죄(업무방해), 손괴범죄(일반적 기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모욕범죄에서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등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를 특별감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게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정인자(행위자/기타)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④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구성요건에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고 법정형이 낮은 상관면전모욕죄를 달리 취급할 필요 있음. 상관의 외적 명예에 대한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나) 특별가중인자

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됨으로써 결과반가가치가 현저히 증가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모욕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이나 자괴감을 야기할 정도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행위반가치가 현저히 증가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다)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라) 일반가중인자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

년 미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
- 다만 그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 문구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 대유형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논의 내용과 동일함

(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일치
 -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 방화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관련 일부 의견 불일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기서 저지른 경우
- 피고용자, 피지휘자 등 비대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중 3번째 예시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9인) : 제외하자는 견해

- 이른바 '갑질'의 비난가능성은 일회성이 아니라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섭될 수 있음. 이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면 이중평가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범행이 일회적이었다면 그런 경우까지 특별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침

② 소수 의견(1인) : 포함하자는 견해

- 이른바 '갑질'에서 비롯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 일반가중인자로 제시된 '비대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특별가중인자에 반영

(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범행

① 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2유형(상관모욕)의 경우 가중인자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1유형(일반 모욕)의 경우 가중인자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㉔ 다수 의견(8인) : 가중인자에서 제외하자는 견해

- 모욕의 상대방이 공무원이라고 하여 곧바로 실무에서 이를 특별한 가중요소로 삼고 있지 않고, 행위의 태양이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적인 요소로 삼고 있음. 단순히 공무원을 모욕하였다고 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양형기준상 객체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임(예를 들어, 존속 등). 만약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모욕을 가중요소로 한다면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를 상

대로 한 모욕에 대해서도 가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가중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됨

㉞ 소수 의견(2인) : 가중인자에 포함하자는 견해

- 실무상 미필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사례가 자체가 많지 않아 감경인자에 포함할 필요성이 낮음

② 가중인자에 포함할 경우 질적 구분 방안

㉞ 다수 의견(8인) :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하자는 견해

- 가중인자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와 같은 취지

㉞ 소수 의견(2인) : 특별감경인자로 구분하자는 견해

- 가중인자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와 같은 취지

(라)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 군형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순정상관'이라 하고,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준상관'이라 함

① 감경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㉞ 제1 의견(6인) : 감경인자에 포함하자는 견해

- 상관모욕은 순정상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기본적인 범죄로 상정하는 것(순정상관에 대한 모욕이 기본영역). 명령복종관계의 유지가 필요한 군의 특수성상 준상관에 대하여는 순정상관보다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㉞ 제2 의견(4인) : 감경인자에서 제외하자는 견해

- 준상관이라고 하여 순정상관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② 감경인자로 포함할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마)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 일반감정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포함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9인)와 ② 제외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1인)로 나뉨
 - 대유형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논의 내용과 동일함

(바) 비대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① 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㉔ 다수 의견(7인) : 제외하자는 견해

- ‘갑질’의 비난가능성은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포섭될 수 있고, 이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면 이중평가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 ‘갑질’에 대한 경종의 차원이라면 모욕보다는 폭력범죄, 권리행사 방해(강요)범죄에 더 적합함. 이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욕범죄에 대해서만 이를 가중인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양형기준의 체계와 맞지 않음

㉕ 소수 의견(3인) : 포함하자는 견해

- 이른바 ‘갑질’에서 비롯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가중인자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② 가중인자로 포함할 경우 일반감정인자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사) 범행 당시 다수의 부하군인 등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2유형)

① 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㉔ 다수 의견(9인) : 제외하자는 견해

- 상관공연모욕의 경우 공연성을 구성요건적 요소로 하므로 이를 별도의 가중인자로 할 필요는 없고, 다수의 부하군인에서 ‘다수’

의 개념이 모호함

㉞ 소수 의견(1인) : 포함하자는 견해

-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군인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가중해서 처벌하여야 함

② 가중인자에 포함할 경우 질적 구분 방안

- '범행 당시 다수의 부하군인 등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를 가중인자에 포함할 경우 ① 일반가중인자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다수 의견, 9인)와 ② 특별가중인자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소수 의견, 1인)로 나뉨

(아) 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2유형)

① 가중인자에 포함할지 여부

㉞ 다수 의견(9인) : 제외하자는 견해

- 상관모욕은 피해자가 순정상관인 경우를 기본적인 범죄 형태로 상정하는 것(순정상관이 기본 영역). 이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하여 일반 모욕보다 무거운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데서 나아가 가중인자로까지 반영하면 양형인자의 이중평가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㉞ 소수 의견(1인) : 포함하자는 견해

- 군대 내 기강 확립의 차원에서 순정상관에 대한 모욕은 엄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음

② 가중인자로 포함할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Ⅲ.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1. 설정대상범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유사수신행위 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	5년↓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

2.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3. 양형인자 검토 결과

가.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정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 ○ <u>단순 가담</u> ○ <u>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u>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u>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u> ○ <u>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u>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u>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u>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u>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u>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u>동종전과(벌금형 포함)</u>

나.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1)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2) 특별가중인자

(가)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므로, 수신액이 수백,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범행이 적지 않음.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대규모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유사한 범죄군에 해당하는 대부업법위반 범죄의 특별가중요소(행위)로 동일한 인자가 존재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매우 큰 경우
-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다수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3) 일반감경인자

(가) 소극 가담

- 공범 중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행위반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경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 범죄 구조상 유사수신액과 실제 이득액(수익액)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등에 따라 개별 보유 이득이 달라짐. 이러한 요소를 양형에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 있음

- 성매매알선, 사행성·게임물범죄, 대부업범위반 범죄 등에서 이를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함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중 허위표시 유형은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규정
-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
- 실무에서도 이득액이 적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다만 피고인별 실제 이득액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함이 타당함

(다)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라) 일반적 수사협조

-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수신행위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감경인자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고려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일반가중인자

(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광고행위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사용할 경우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 있음

- 도박장소 개설,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대부업법위반 범죄 등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기, 대부업법위반 범죄 등의 예에 따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다)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과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특별감정인자로 반영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양형인자의 명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① 제1 의견(5인)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사수신행위에 있어서 범행동기는 대부분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뢰 여부임. '범행동기'라는 명칭이 사용되면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믿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면죄부를 줄 위험이 있음

② 제2 의견(4인)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가담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공범을 전제로 한 경우만 적용 가능함. 단독범에 있어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더라도 감경요소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대부분 범죄군의 양형기준에 있어서 범행동기는 특별감경인자로 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과 균형이 맞지 않음

③ 제3 의견(2인)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를 포섭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범행동기'라는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관련 일부 의견 불일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중 3번째 예시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

① 적용 요건

㉔ 제1 의견(6인)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 주관적 요건(이에 대한 신뢰)만을 요구하면 적용되는 사례가 불합리하게 많아지므로 객관적 요건(실제 실현 가능성)과 주관

적 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감경함이 타당함

㉞ 제2 의견(5인)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 객관적 요건(실제 실현 가능성)의 충족 여부를 요구할 경우 양형심리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가중됨. 범행 동기의 측면이므로 주관적 요건으로 충분함

② 적용 대상

㉞ 다수 의견(7인) : 공범 중 '범행을 주도한 자'를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 범행을 주도한 경우라도 동기의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을 신뢰하여 행위를 한 경우라면 불법성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범행의 주도 여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별개 문제임

㉞ 소수 의견(4인) : 공범 중 '범행을 주도한 자'는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 주관적 요건만으로 정의 규정을 둘 경우 감경인자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범행주도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 있음

③ 질적 구분

㉞ 다수 의견(7인)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에 예시로 포함시켜 특별감경인자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

㉞ 소수 의견(4인) :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

(2) 단순가담

-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과의 균형 등을 감안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적용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① 적용 요건

㉠ 다수 의견(9인) : '단순가담'

- 조직적 유사수신행위 범죄에는 공모 단계에만 관여하였을 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소극적 공범이나 최하위 영업사원, 경리, 아르바이트생 등 단순 업무에만 가담한 공범들이 다수 존재함. 이와 같이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함이 타당
-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대응하는 양형인자로서의 성격을 갖게 됨

㉡ 소수 의견(2인) : '단순가담'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담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실제 이득액이 많다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요건으로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필요 있음

② 적용 범위

㉠ 다수 의견(8인) : 1, 2 유형 모두 적용

- 비조직적 범행에 있어서도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행위불법의 차이는 양형에 합리적으로 반영함이 타당

㉡ 소수 의견(3인) : 2유형 한정

- 조직적 범행에서 주로 문제되므로 2유형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타당

○ 양형인자의 정의('단순가담'에 한하여)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아니하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3)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행위반가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명칭과 양형인자의 정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① 명칭

㉞ 다수 의견(8인) : 명칭 변경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는 자칫 특별감경인자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 개념이므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함
- 다만 그 명칭은 이에 포섭될 수 있는 양형요소의 범위와 연동하여 결정

㉟ 소수 의견(3인) : 명칭 유지

- 유사한 범죄군인 대부업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는 등 이미 사용된 명칭이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

②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㉞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㉟ 다수 의견(9인) : 제외하자는 견해

-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독립된 특별감경인자의 하나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㊱ 소수 의견(2인) : 포함하자는 견해

-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경우를 양형상 다르게 취급함이 타당

㉔ **범행으로 인한 수신크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적은 경우**

- ㉔ 질적 구분에 대하여,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 특별감경인자로 구분하자는 견해(제2 의견, 5인)로 나뉨
- ㉔ 만약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할 경우 별개의 양형인자로 두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 포섭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3인)로 나뉨

(4)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특별감경인자로 구분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
 - 조직적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적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수, 내부고발' 외에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7인) : 조직적 범행에 한정**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자수나 내부 고발과 동등한 요소로 두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 예방에 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조직적 범행으로 한정함이 타당함

② **소수 의견(4인) : 모든 범행에 적용**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하였다면 조직적 범행과 비조직적 범행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

(5)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양형인자 정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7인) : 수신액 기준

- 공소사실에는 유사수신 총액이 기재되고, 이 금액이 유사수신범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해 회복 여부를 따지는 것이 적정함
- 유사수신 총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특성상 매우 어렵고, 유사수신범죄의 피해액이 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양형인자의 정의

유사수신 총액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소수 의견(4인) : 피해액 기준

-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특성을 감안할 때, 수신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2/3 이상의 요건이 쉽게 충족될 여지가 있음
- 환급액을 공제한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처벌 불원 여부를 가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총 피해액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6)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특별가중인자로 구분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8인) : 2유형에 한정

- 비조직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1유형까지 포함할 경우 대부분의 사안이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됨

- 참고가 되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도 일반사기는 해당 인자가 없고 조직적 사기에만 있음

② 소수 의견(3인) : 모든 유형에 적용

- 조직적 범행에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7)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포함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9인)와 ② 제외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1인)로 나뉨
 - 명예훼손범죄군에서의 해당 부분 논의와 동일함

(8)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제1 의견(6인)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자는 견해
 -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로 고려함이 피해 회복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 조직적 사기 범행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규정된 양형인자임
- 제2 의견(5인) :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하자는 견해
 -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추가에 신중하여야 함
 -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별도의 양형인자로 두는 것은 부적절함

(9)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가중인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질적 구분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 ① 다수 의견(8인) : 일반가중인자로 구분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전형적인 재산범죄보다는 대부업법위반 범

죄와 같은 영업범죄 성격이 강하므로 범죄수익 은닉을 특별가중
인자로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음

- 전형적인 재산범죄 유형에 속하는 공갈에서도 이를 일반가중요
소로 반영함

② 소수 의견(3인) : 특별가중인자로 구분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 피해 회복에 지장을 주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를 엄정하
게 취급할 필요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10)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다수 의견(7인) : 일반가중인자에서 제외하자는 견해

- 유사수신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만한 객
관적인 자료가 없음
-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과 비교할 때, 유독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
죄의 양형기준에서 가중인자로 추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 소수 의견(4인) :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하자는 견해

-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많이 발견되는 범죄이므로 단순 벌금
전과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중요소로 감안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IV.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1. 설정대상범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49조 4항	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3년 ↓ 징역 또는 2천만 원 ↓ 벌금 (병과 가능)
	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3호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2.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¹⁾	- 6월	4월 - 10월	6월 - 1년2월
2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 종래 ‘비영업적·비조직적 범행’으로 표기했으나 ‘일반적 범행’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3. 양형인자 검토 결과²⁾

가.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 ○ <u>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u> ○ <u>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u>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u>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u>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가담 ○ <u>생계형 범죄</u> ○ <u>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u>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u> ○ <u>반성 없음(범행의 단순부인은 제외)</u>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u>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u>동종 전과(벌금 포함)</u>

나.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1) 특별감경인자

(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인자에 대한 논의 시에는 범현 전문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모두 10명의 전문위원이 논의를 진행함

(나)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양형자료조사결과 주요 감경 사유로 고려되고 있음
 - 판결 기재로 확인되는 16건은 모두 집행유예[주형이 징역 4월인 경우 8건, 6월인 경우 7건, 8월인 경우 1건 ⇒ 형량범위(안)의 감경영역에 포섭됨]
-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피해가 큰 사기범죄의 전제가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서 피고인 스스로 추가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 범죄발생 위험을 제거한 것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2)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3) 일반감경인자

(가) 소극가담

- 공범 중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행위반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경 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다) 일반적 수사협조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감경인자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고려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일반가중인자

(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기, 공갈, 증권범죄 등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생계형 범죄'를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하자는 견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일반가중인자에 해당한다는 논거도 제시
- 양형인자의 정의

-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기, 대부업법위반 범죄 등의 예에 따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다)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명칭에 대하여 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와 ②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2인)로 나뉨
 - 소수 의견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를 포섭하는 상위 개념이어서 범행가담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단순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하여 ① '2유형 중 조직적 범행'에 한정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와 ② 모든 유형에 적용하자는 견해(제2 의견, 4인)로 나뉨

○ 양형인자의 정의

- | |
|---|
| <p>-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아니하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p> |
|---|

(3) 자수, 내부고발 또는 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와 관련하여 그 적용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① 조직적 범행에 한정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

-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경우가 대부분 포함될 수 있음. 공범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있어서는 조직적 범행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모든 범행에 적용하자는 견해(제2 의견, 4인)로 나뉨

- 현실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서 조직적 범행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중국 등 국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 특성상 조직적 범행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이 실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4)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하여 ① 조직적 범행에 한정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와

② 모든 범행에 적용하자는 견해(제2 의견, 4인)로 나뉨

- 양 견해의 논거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의 해당 부분과 같음
- 특별감경인자 중 ‘단순가담’의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5)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전단 부분의 표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

① 제1 의견(6인)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로 하자는 견해

- 제2 의견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한꺼번에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② 제2 의견(4인) : '다량의 접근매체에 관한 장기간 또는 반복적 범행'으로 하자는 견해

- 다량의 접근매체에 관해 장기간 ·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결과 반가치가 크고 후속 범죄와의 연계성도 높아지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1회에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까지 반영해야 할 만큼 결과반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전단과 후단을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7인) :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

- 다량의 접근매체에 대하여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는 대부분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큰 경우로 귀결됨. 후자를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하면 특별가중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뿐 아니라 이중평가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소수 의견(3인) : 별개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는 피해자의 측면에서,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는 행위자의 측면에서 각각 불법이 가중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규정함이 바람직함

(6) 생계형 범죄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① 다수 의견(8인) : 포함하자는 견해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를 고려함이 적절함. 다만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도 주로 일반감경인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가중인자 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대응함

② 소수 의견(2인) : 제외하자는 견해

-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하부 말단에 있는 피고인은 특히 생계를 위해서 범행을 저지름.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해서 거의 감경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7)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① 제1 의견(6인) : 포함하자는 견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판결례가 다수 발견되고, 성매매알선, 사행성·게임물, 대부업법위반범죄 등 다른 범죄군에서도 이를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함
- 대부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0원~50만원 구간에 있으므로(82%),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② 제2 의견(4인) : 제외하자는 견해

- 사기방조에 해당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자금융거래법위

반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음. 그 경우 하위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얻은 이득은 별로 없으나 피해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8)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일반감정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포함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9인)와 ② 제외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1인)로 나뉨
- 명예훼손범죄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군에서의 해당 부분 논의와 같음

(9) 후속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후속 범죄(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중요소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① 포함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와 ② 제외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2인)로 나뉨
- 소수 의견은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
- 가중요소로 포함할 경우 질적 구분에 대해서는 ① 일반가중인자로 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6인)와 ② 특별가중인자로 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2인)로 나뉨³⁾
- 다수 의견의 논거 : 통계적으로 특별가중인자로 구분할 정도의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후발적 사정을 가지고 특별가중하는 것은 부적절함
- 소수 의견의 논거 :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은폐를 위한 범죄에 실제 사용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3) 제외하자는 입장에서는 질적 구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지 않음.

○ 양형인자의 정의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10)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부인은 제외)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제외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8인)와 ② 포함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2인)로 나뉨
 - 다수 의견의 논거 : 살인범죄와 같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제한적으로 반영된 양형인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인자로는 적절하지 않음
 - 소수 의견의 논거 : 접근매체를 양도하고서도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라는 식으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 종종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11)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제외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와 ② 포함하자는 견해(제2 의견, 4인)로 나뉨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의 해당 부분 논의와 같음

V. 향후 일정

- 6기 설정범죄(명예훼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방안(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일시 : 2018. 12. 17.(월) 14:00~
- 장소 : 대법원 404호